

야마시타의 나침반 물통 고안

드 반대의 필수품으로 손꼽히는 물통과 나침
○ 반. 이 두 가지 물건을 하나로 만들어 크게
히트한 발명품이 있다.

이름하여 뚜껑에 나침반을 붙인 물통.

‘연필+지우개’ 라

는 하이만의 발
명품과 같은 이
물통도 세계적
인 발명으로 기
록되고 있다.

발명가는 산이
있어 세상 살맛
이 난다는 일본
의 젊은 등반인
야마시타.

야마시타는 일
본의 산이라는
산은 모조리 정
상을 정복할 정도로
등반에 관한 한 전문가였다.

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듯 야마
시타도 등반 도중 길을 잃고 말았다.

배낭을 뒤져 나침반을 찾았다. 그런데 이날 따
라 나침반을 가져오지 않았다.

큰일이었다. 당일 코스여서 음식도 준비하지 않
았는데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다.

가진 것이라고는 허리에 찬 물통 하나가 전부였
다. 그나마도 없었다면 살아날 수 없었을 것이라

고 생각하니 아찔한 생각까지 들었다. 우선 물 한
통으로 밤을 새우기로 하고 물통 뚜껑을 열었다.
그 순간 야마시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.

‘아무리 가깝고 낮은 산이라도 등산을 하려면
물통을 가지고 간다.

그렇다면…….’

야마시타는 물
통 뚜껑에 나침
반을 붙여놓으면
나침반 걱정은
하지 않아도 될
 것이라는 생각을
했다.

성공이었다.
실용신안을 출원
하여 등록을 받
자 곧바로 상품
화되었다.

한정된 등반인구로

인하여 많은 양이 팔릴 수는 없었으나, 야마시타
는 발명가로 화려하게 데뷔하여 역사 속에 이름을
남겼다.



왕연중
한국발명진흥회 이사

발·특2006.12 |